

역사문화탐방 국외연수 보고서

- 일본 내 우리문화 및 항일독립운동의 발자취를 통해 본 역사적 의의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37기 고급리더과정(비전반)

 목 포 시

1 연수 개요

□ 연수목적

- 항일운동과 강제징용 등 수난과 고통의 근현대사를 일본내 관련 유적지 등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대한국민으로서의 애국심 함양 및 민족정신 고취
- 지방행정의 중간 관리자이자 리더로서 역사적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주 의식을 보다 확고히 다지므로써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및 확고한 가치관 정립

□ 개 요

- 주 제 : 일본 내 우리 역사 문화 탐방
- 기 간 : 2017. 9. 4(월) ~ 9. 8(금) / 4박5일
- 방문지 :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무타, 오사카, 히라카타, 교토)

※ 방문지 선정

- 일본 내 항일운동 유적지, 일제 강제징용 현장 및 왕인박사 묘소 등 일본 내 우리 문화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선정
- 문화 탐방 일정을 최소화 해 해외 연수의 의도와 취지 실현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도록 함.

- 연수인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37기고급리더과정(비전반) 57명

※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연수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비 고	번호	성 명	소 속	비 고
1	진용득	서울특별시	자료수집	30	주은영	대전광역시	자료수집
2	윤희면	부산광역시	"	31	임효선	경기도	"
3	한영호	인천광역시	"	32	조종용	강원도	"
4	신욱호	경기도	"	33	유장열	충청북도	"
5	고명균	강원 원주시	"	34	이만균	경기 안산시	"
6	이용봉	충청남도	"	35	곽동석	충청남도	"
7	박선식	전라북도	"	36	이정희	부산광역시	"
8	이두성	전라남도	보고서 작성	37	김영로	전라북도	"
9	김종구	경기도	자료수집	38	심인섭	전남 목포시	"
10	임현성	경상북도	사진촬영	39	조흥구	경상북도	"
11	최복식	경상남도	자료수집	40	박민규	경상남도	"
12	강지현	서울특별시	"	41	배재철	경기 군포시	"
13	민승용	경기 부천시	"	42	권 민	서울특별시	"
14	김인태	경남 거제시	"	43	윤금동	대구광역시	"
15	이동수	서울특별시	총 무	44	이정식	광주광역시	"
16	이재형	부산광역시	자료수집	45	송기현	경기도	"
17	임경택	인천광역시	"	46	윤동의	대전광역시	총 괄
18	김윤일	울산광역시	"	47	윤영란	경북 포항시	자료수집
19	전기송	경기도	"	48	정덕모	울산광역시	"
20	임정규	서울특별시	"	49	곽병창	세종특별자치시	"
21	김기학	충청북도	"	50	박원철	경기도	"
22	조광희	충청남도	"	51	조만호	충남 서산시	"
23	최명복	경기 안양시	"	52	홍득호	경상남도	"
24	이상춘	전북 익산시	"	53	이영철	제주특별자치도	"
25	안장락	경상북도	"	54	변신철	경기 평택시	"
26	손사현	경상남도	"	55	황석중	부산광역시	"
27	유근식	경기 의정부시	"	56	김영화	원 팀장	"
28	이성재	서울특별시	"	57	한기섭	원 주무관	"
29	김병규	광주광역시	"				

2 연수 일정

일 자	지 역	탐 방 내 용
제1일 9/4(월)	인천,김해/ 후쿠오카	· 인천공항 출발/후쿠오카 도착
	후쿠오카	· 후쿠오카 구 형무소(윤동주, 송몽규 시인) · 이동 (→ 나가사키)
	나가사키	· 숙박
6/27(화)	나가사키	· 군함도 자료관 관람 및 군함도 조망 · 평화공원 관람 · 원자폭탄 자료관 관람 · 평화공원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도비 참배 · 이사하야 형무소(조선인 수감자 원폭 희생) · 이동 (→ 타마)
	타마	· 숙박
6/28(수)	타마	· 이동 (→ 오무타)
	오무타	· 미쓰이 미이케 탄광 견학 · 강제 징용자 위령비 참배 · 마와타리 사택터(강제 징용자 숙소) 관망 · 이동 (→ 후쿠오카역)
	후쿠오카	· 이동 (→ 오사카 : 신간센)
	오사카	· 중앙공회당 및 사회운동 현장탐 견학 · 신사이바시 및 도톤보리 문화 탐방 · 숙박

일 자	지 역	탐 방 내 용
6/29(목)	오사카	· 이동 (→ 히라카타)
	히라카타	· 백제사 및 사적내 백제왕 신사 견학 · 왕인박사 묘소 견학 및 참배 · 이동 (→ 교토)
	교토	· 이충(귀 무덤, 임진왜란) 참배 · 교토 문화탐방(금각사, 청수사) · 윤동주, 정지용 시인 시비(동지사 대학) 견학 · 이동 (→ 오사카)
	오사카	· 숙박
6/30(금)	오사카/ 인천,김해, 대구,제주	· 오사카 출발/인천공항 도착

【이동경로】



3 방문지 별 연수내용

▶ 후쿠오카 형무소

○ 개 황

- 최초에는 1871년(메이지 4년) 도형장(徒刑場)으로 건립
- 이후 1881년에 후쿠오카 감옥소 → 1922년 후쿠오카 감옥 → 1922년 후쿠오카 형무소로 명칭이 변경
- 1965년 후쿠오카 형무소가 이전, 그 자리는 구치소로 활용

○ 유의점 : 윤동주, 송몽규 시인이 투옥되어 순국

- 일제 강점기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서 싸우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들이 수감되어 혹독한 고문과 중노동 등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참혹한 역사의 현장
- 특히 윤동주 시인은 1943년 일본 유학 중 일본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독립운동)이라는 죄명으로 검거되어 2년형을 선고 받고 이 곳에 수감되어 갖은 고문과 노역을 겪다 해방을 불과 6개월 앞 둔 1945년 2월 16일 20대 후반의 나이로 생을 마감
- 한편 윤동주 시인의 고종사촌이자 지기인 송몽규 시인도 1944년 투옥되어 같은 해 3월 7일 순국



윤동주 시인



송몽규 시인



후쿠오카 형무소(옛 모습)



후쿠오카 형무소(현재 모습)

▶ 군함도 [강제동원, 망각의 현장]

○ 개 황

- 일본 공식 명칭은 ‘하시마 섬’으로 나가사키시에서 남서쪽으로 육지에서 약 19km 거리 해상에 위치
- 섬 해저에 양질의 석탄이 매장된 곳으로 메이지 초기부터 석탄 채굴을 위해 섬 주위를 매립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총 6.3ha 면적의 섬으로 확장됨
- 강제징용 당시 섬에는 1,600여명의 일본인이 거주

○ 유의점 : 일제의 강제징용 증거 이자 노동 착취의 현장

- 1944년부터 중국과 조선인 800여명을 강제징용하여 석탄 채굴에 투입, 조선인 400여명 중 122명이 극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착취, 폭행 등으로 인해 사망
- 일명 ‘지옥섬’이라 불리어지고 있으며, 당시 징용자에 대해서는 다다미 한 장 크기 면적(1.6m³)의 숙소에 7,8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배정하고, 하루 2교대로 12시간씩 쉼씨 45도가 넘는 지하 1,000미터 이상의 갱도에 투입하여 강제 노역

<세계문화유산 등재> → 가해자가 참혹한 피해 현장을 돈벌이로

-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하시마 탄광)를

비롯한 24개 일본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정

- 이 과정에서 강제노역 사실이 확인된 군함도를 비롯한 7개 시설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고,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와의 협의에서도 조선인의 강제징용과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음
- 그러나 일본은 대상기간을 강제징용 이전인 1850~1910년으로 한정하여 현장을 홍보하는 등 강제징용자에 대한 노동 착취 등의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왜곡을 시도
- 이러한 일본의 비인도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강제징용자에 대한 단 한 건의 자료도 전시되어 있지 않은 ‘군함도 자료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군함도 전경

▶ 나가사키 원자폭탄 자료관 /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도비

○ 개 황

① 나가사키 원자폭탄 자료관

- 세계 제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폭(리틀보이/우라늄형)이 투하되고 3일후인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 우라카미 지역에 2번째 원폭(팻맨/플토늄형)이 투하되어 약 15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

- 이 곳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의미에서 1996년 그간의 경과와 원폭의 실체, 그리고 당시의 참혹했던 현장의 모습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여 건립

②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도비

- 양식있는 일본인들이 참여한 " 나가사키 제일 한국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 " 주도로 1978년 8월 9일 조선인 원폭 희생자를 추도하기 위해 평화공원내에 추도비를 건립

<평화공원> 원자폭탄이 투하된 장소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나즈막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화를 염원하는 높이 9.7미터의 " 평화 기념상 " 과 " 평화의 샘 " 그리고 세계 각 국에서 보내 온 기념비와 조각 들이 전시되어 있음

○ 유의점

-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됨으로써 당시 강제징용 등으로 현지의 조선소와 무기 제조공장 등에서 노역 중이던 약 3만명의 조선인 중 2만명이 피폭되고 이 중 1만명이 사망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도비



평화공원

▶ 나가사키 이사하야 형무소

○ 개 황

- 근자에 이르기까지 이사하야시에 위치하여 간조교도소로 알려져 왔으나 이곳은 사실 나가사키 교도소였음
- 현재는 폐허가 된 옛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교터소가 아닌 임시 구치소로 활용

○ 유의점 - 육삼정 의거의 주역 백정기, 이강훈 등 투옥

- 1933년 2월 상해사변 직후 'BTP'라는 “흑색 공포단”을 조직, 일제에 맞서던 백정기와 이강훈은 1934년 3월 17일 주중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가 일본 정객, 참모부원, 중국의 친일 정객, 군인 등 백여명을 상해 홍구 ‘육삼정’이란 요정에 초대해 연회를 연다는 기밀을 탐지하여 이 곳을 습격하기로 계획함
- 하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두 사람 모두 체포돼 이 곳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백정기는 투옥 3개월여만인 1934년 6월 5일 옥중 순국하고 이강훈은 이후 구마모토 감옥으로 이감되어 해방과 함께 석방됨
- 이와함께 조선의용대의 마지막 분대장인 김학철 선생, 의열단 출신으로 일본 육군대장을 피격 시도했던 김익상 의사, 의열단 출신 김시현 의사 등도 이곳에서 복역



나가사키 형무소(1)



나가사키 형무소(2)

▶ 미이케 탄광 강제징용 희생자 위령비

○ 개 황

- 미이케 탄광은 1990년 폐광하고 배기용 굴뚝, 배수펌프 등 그 흔적 일부를 가지고 미야우라 석탄공원으로 조성
- 이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일본 근대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부각시켰는데, 한국인 래방객은 거의 없는 실정
- 위령비는 미쓰이 그룹 소유인 미이케 탄광에 강제로 끌려와 힘든 노역을 하다 숨진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건립

○ 유의점 :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 강제징용

- 위령비는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이하 민단) 오무타 지부 우판근(79세) 선생의 끈질긴 노력으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무타시가 무상 제공한 공원부지에 당시 탄광 운영 기업인 미쓰이 그룹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건립
- 그 당시 미이케 일대에는 9천여명의 강제징용 조선인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강제노역 중 숨진 이는 30여명에 달했다 함
- 위령비 건립의 가장 큰 의미는 최초로 공공기관이 강제징용을 인정했다는 상징성에 있다 할 것이며, 이를 단순히 희생자 추모라는 단순한 의미로 해석해 버리면 수많은 세월 동안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해 온 우판근 선생과 조력자 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 될 것임
- 한편, 위령비 한 쪽 비문에는 당시 200여명의 조선인 머물렀던 미이케 탄광 ‘마와타리 사택’ 51동 벽장에 남겼던 그들의 망향에 대한 서글픈 마음이 깃든 글과 낙서가 각인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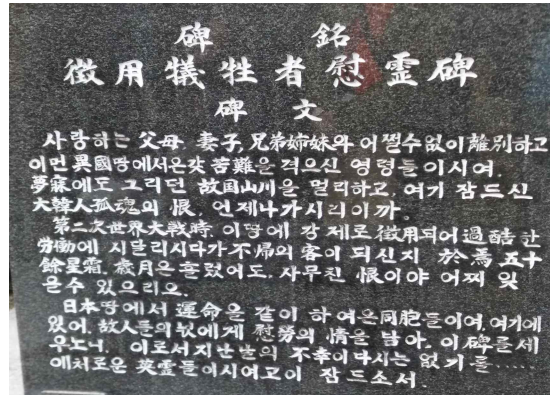
-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수공장 등에 투입된 강제동원 노동자들은 한국인을 비롯한 극동지역, 동남아시아 등에서 150~200만명에 이르고, 오무타 지역에만 12천명에 달했다고 함. 이들 중 희생자 유골 상당수가 아직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라고 함

【우판근 선생의 위령비 참배시 우판근 선생의 말씀 요지】

- 전북 진안이 본적. 거제 장승포에서 38년에 태어나 4살에 도일
- 오무타에 있는 절을 모두 뒤졌는데 유골 하나 없었음
- 탄광 노동자는 2년 자유계약자는 적고 대부분 강제징용자
- 급여예금은 다 주었다고 하는데 사가에 2만, 후쿠오카에 7만개 예금 통장이 살아있었음. 돌려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죽은 사람 것은 찾을 길 없어
- 징용에서 죽은 사람도 객사를 숨기려고 가족들이 집에서 죽었다고 호적에 표기. 찾아본 호적 중에 한 사람만 탄광에서 죽었다고 표시. 아직 못 돌아간 혼백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고 위령비를 건립을 결심
- 일본 우익들이 위협하며 방해. 차로 미행하고 집으로 전화
- 오무타시가 위령비 설치부지를 공원에 제공하고 미쓰이 회사가 건립비 전액을 부담. 1995. 3월에 설치
- 위령비 방향을 한국으로 향하게 함. 비석 상·하부의 거북과 용은 한국 여주에서 만들어 옴. 마와타리 사택 낙서에 보면 여주에서 온 징용자들이 있었음
- 근처에 10개 정도 유적지가 있는데 마와타리 사택이 유명. 마와타리(馬渡)는 '질척이는 땅이라 말타고 지나는 곳'이란 뜻
- 수용소는 10명도 잘 수 없는 방에 교대로 해서 20명 이상이 썼는데 환자는 아마도 죽었다고 도장 찍고 몰래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
- 1989년 조선 징용자 숙소에서 벽서들이 발견, 위령비 앞에 재현.
- 위령비 건립 후에 구리하라 타카시(栗原孝, 재임 1995~2003) 오무타시장이 자신의 목을 걸고 강제징용자 희생사실을 새긴 위령비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 줌
- 지금도 매년 4월 첫번째 일요일 위령제를 지내는데. 적게는 60명, 많게는 150명이 모임
- 열심히 해 주실 것 당부. 힘을 키워야 함. 지킬 힘 만큼은 있어야 함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위령비



위령비 비문

▶ 백제왕 신사 및 백제사 터 / 왕인박사 묘

○ 개 황

① 백제왕 신사 및 백제사 터

- 오사카부 히라카타 시의 주큐에 위치
- 제신으로 백제국왕과 우두천왕 등 백제 왕조의 선조를 을 모시는 사당으로 백제 왕씨(百濟王氏)의 씨족 신사로 추정

② 왕인박사 묘

- 서기 286년 무렵 일본으로 건너가 문자를 전파하여 일본 문화의 효시로 추앙받고 있으며, 현 묘소는 1938년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에서 사적으로 지정하면서 정비

○ 유의점

- 고구려와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패망하자 많은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감
- 백제사와 백제왕 신사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아들 용의 증손 경복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백제왕 신사는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고문서 「백제왕 영사묘 유서」가 이 곳에 있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지고 있음

- 왕인박사는 백제 근초고왕 때의 학자로 그의 나이 32세가 되던 해 일본 오우진 텐노(神天皇)의 요청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일본으로 건너 가 문자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기예 등을 전파하였으며, 일본 태자의 스승을 지내기도 함
- 한편, 그의 이름이 일본의 서기에 나오는데 ‘고서기’에서는 “와나시키”, ‘일본서기’에는 “와니” 라고 기록
- 일본에서 “학성” 으로 또는 “일본 문화의 효시” 로 불리고 있는 왕인박사를 기리기 위해 1985년 “왕인박사 묘를 지키는 모임” 이 결성 되기도 함



백제왕 신사



왕인 박사의 묘

▶ 이충[耳塚, 귀무덤]

○ 개 황

- 교토 시 히가시야마 구에 있는 무덤으로 임진왜란의 원흉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받드는 도요쿠니 신사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건너편 공원 한켠에 위치
-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충성도를 확인받겠다는 잔인하고 비열한 생각과 자국내 혼란을 무마하는 데 소재가 필요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이해가 결합하면서 결국 잔인무도한 행위를 자행

○ 유의점

- 임진왜란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 휘하 장수들은 전리품으로 부피가 큰 시신의 목 대신 코를 베어 일본으로 보냈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숫자를 세어 감사장을 보내고는 이를 모두 모아 일본 전역을 자랑스럽게 순회하면서 전승을 과시
- 이후 교토에 이를 묻었는데 이 것이 현재의 귀무덤으로 불려지고 있음
- 전란중 이들이 베어간 코는 12만 6천명 분으로 후일 코무덤이라 하면 너무 야만스럽다 하여 에도시대부터 귀무덤이라 부르기로 함
- 현재 귀무덤은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무관심한 가운데 개인이 3대째 관리하고 있음



이총(귀 무덤)



이총 참배

▶ 윤동주, 정지용 시비

○ 개 황

- 도시샤대학 이화학관 건물 뒷편에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나란히 건립되어 있는 이는 각각 1992년과 2005년에 건립

- 시비에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序詩)”와 정지용 시인의 “압천(鴨川)”이 원문과 일본어로 번역되어 새겨져 있음

○ 유의점

- 윤동주 시인은 도시샤 대학 영문과 재학 중 1943년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해방되던 해 옥중 순국. 연세대 캠퍼스와 간도 용정중학 교정에도 시비가 세워져 있음
- 두 사람의 시는 국적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좋아했으며, 현재 일본에는 “윤동주의 시를 사랑하는 모임”이 결성돼 해마다 윤 시인을 기리는 행사를 연다고 함



정지용 시비



윤동주 시비

4 연수 후기 및 과제

- 이번 일본 역사문화탐방은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하거나 잊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설정케 하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음. 아울러 교훈과 자기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음.

-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분노했고, 어떤 곳에서는 부끄러워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자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체험속에서 다시금 질곡의 근현대사를 조금은 트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함
- 왕인 박사 유적지에서는 우리민족의 우월성에 큰 자긍심을 느꼈던 반면에 귀 무덤(코 무덤) 앞에서는 차마 그 처연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들었음.
- 탄광이나 군수공장에서 지옥 같은 노역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강제징용 희생자와 일제의 폭압에 의연히 맞서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어 순국에 이르렀던 교도소를 보면서는 일본의 잔인성과 간악함에 분노하고, 망국의 길을 걷게 한 우리의 한심한 위정자들을 향해 소리 없는 항의와 독설을 되뇌이기도 했음
- 다시는 나라가 힘이 없어 국민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며,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출시키는 한편, 자랑스런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역사인식을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문화체험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함

우리의 대응과 과제



☞ 역사는 건축물의 토대(주춧돌)와도 같음. 부실한 토대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재는 역사의 결과이며, 미래는 현재의 결과일 것임. 부실한 역사는 결국 현재도 미래도 부실을 안겨줄 것임. 역사는 끊임없이 현재를 향해 교훈을 던져주고 있음.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임. 때문에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역사가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도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것은 결국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함. 일본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역사의 준엄한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는 듯함. 때문에 현재도 문제지만 미래의 그들이 보여주게 될 모습은 더욱 문제일 수 있음.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실체적 사실마저 부정하는 저들 일본에 대고 이제 우리가 용서해 줄 준비가 되었으니 모든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죄와 함께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임

☞ 역사왜곡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에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현안은 그간 일본의 비열한 권모술수와 우리 위정자들의 잘못된 대응으로 말미암아 수십년째 해결의 실마리 조차 풀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상황이 이런만큼 이제 우리는 결연히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 치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국민 모두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드려 낼 수 있지 않을까요?

※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왜곡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① 확고한 역사인식 구비

- 우리 스스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함
- 역사의 실체를 알고 정체성을 확립할 때 자신감을 갖게되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

② 일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논리 개발

-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임에 틀림 없음
- 그들의 역사와 문화, 국가와 국민,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의 행태, 향후 지향하는 것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맞춤형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함

③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

- 우리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필요한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외국의 국제적 인지도 높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나 시민단체 중심의 국제적 NGO 네트워킹 등 현안에 따른 적절한 협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음

④ 지속가능한 상위 국력 확보

- 한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는 이 번 역사문화탐방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남
-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이 각성하고 역사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강대한 국가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임

※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자 - 일본의 과거사 왜곡


한·일 역사갈등 일지

2001년	일본 우익단체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중학생용 역사교과서(후소샤 교과서)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통과, 임나일본부설 등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고 있었음
2001년 4월 23일	한국에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출범, 후소샤 교과서 불채택 운동 등 진행
2002년 3월	양국 정부 합의 아래 제1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출범
2005년 3월	제1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 종료, 공동 보고서 발표했으나 역사 인식에 대한 현격한 차이 드러냄
2006년 9월	한국, 동아시아 역사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2007년 6월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 개시
2010년 3월 23일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 종료, 공동 보고서에서 '임나일본부설 폐기' 등 일부 성과 이끌어냄



▲ 일본 역사왜곡은 극우정치인과 극우학자,극우언론의 합작품이다.





▲ 일본 새역모의 교과서에서 중세부터 현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필했던 사카모토 다카오는 우익 잡지 세이론과 오키나와 류큐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위안부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화장실 구조에 관한 역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 만큼 교과서에 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